'내놓은 자식' 취급 배당주, '흙속 진주' 찾듯 옥석고를 때

SK이노, 에쓰오일, 현대모비스 등 코로나 여파 실적 부진에 '배당컷'
배당금 포기 투자자들, 자금이탈 저평가된 배당주 투자 기회로

지지부진한 주가흐름을 이어가는 배당주가 하반기 반격을 준비 중이다.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배당 가능성이 높은 우량 배당주는 중장기적으로 주가 흐름에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주도주로 수급이 쏠리는 상황에서 현재의 풍부한 유동성이 줄어들기 전에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은 기업을 주목하라는 것.

◆코스피 50% 오를 동안 고배당주 상위 10곳 34%↑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중간배당을 목적으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결정일'을 공시한 상장사는 총 54개다. 58사가 중간배당을 했던 지난해보다 4곳 줄었다. 정유 업종의 대표적인 고배당주였던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전 부진 속에 배당을 포기했다. 자동차 업종인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다. 전통적 배당주의 실적 부진 속 배당컷(배당금 지급 중단) 선언이 이어지며 배당주에 대한 냉대도 이어지고 있다.

〈현금배당액 상위 10사 지난 3월 연 최저점 대비 상승률〉

종목	지난해 현금배당액(억원)	저점 대비 상승률(%)
삼성전자	96192	28.05
현대차	10535	54.02
신한지주	8839	34.96
KB금융	8611	37.23
포스코	8012	31.18
SK텔레콤	7301	30.06
SK하이닉스	6840	24.63
하나금융지주	6165	48.78
KT&G	5570	15.62
우리금융지주	5056	38.1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50.10% 상승

개인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 것도 배당주 부진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코스피 지수가 연 최저점이던 지난 3월 19일(1457.64)에서 50% 가까이 가파른 반등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2% 남짓에 불과한 평균 배당수익률이 성에 차지 않는단 얘기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배당수익을 포기하고 자금을 빼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효석 SK증권 연구원은 "무형자산 관련 주식이나 성장주보다 상대적으로 배당주가 부진했다"며 "배당주 성과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실적 불확실성이 자금 이탈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배당주의 최근 흐름은 좋지 못했다. 배당성향이 높은 전통적인 고배당주는 전통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은행, 정유, 증권, 화학 등 업종이 강한 배당성향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지난해 총 9조6192억원을 배당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1조535억원), 신한지주(8839억원), KB금융(8611억원), 포스코(8012억원) 등 배당이 많았던 상위 10개사의 지난 3월 연 최저점 이후 6일까지 기록한 상승률(종가 기준)은 34.26%. 이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50.10%)에 한참 못 미친다.

강봉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3% 하락한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배당주는 아직도 20% 내림세에 머무르며 더디게 반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꾸준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고배당주를 주로 담는 고배당펀드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 6일 한국펀드평가사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이 넘는 국내 배당주 펀드 297개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0.12%로 집계됐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10.03%에 달한다. 자금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체 설정액은 4조1890억원으로 연초보다 8813억원이 빠졌다. 최근 한 달 동안 1239억원이 줄었다.

◆역으로 투자 기회로… 저평가 '배당주' 찾아라

저평가된 지금의 배당주 상황을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높은 기대수익률로 인해 성장주에 쏠린 투자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라는 조언이다.

이효석 연구원은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이 더딘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실한 부분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저평가된 상태가 오히려 좋은 배당주 종목들을 고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배당주들이 상대적으로 덜 반등했다. 시가가 많이 내려온 만큼 기말 배당수익률이 이전보다 좋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유, 화학 등 일부 전통산업에 대해선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 2분기에도 영업 손실 가능성이 커 기말 배당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된 전통산업들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 음식료 기업 중 배당여력이 있는 곳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오 연구원도 "그동안 배당을 꾸준히 해왔었던 정유·화학주들이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며 배당을 하지 않는 곳들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 여력이 있는 곳을 잘 고른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며 "종목 선별에 자신 있다면 직접 투자를, 그렇지 않다면 배당주 펀드를 권한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유럽 전기차 확대 수혜… 3분기 실적개선 긍정적

株라큘라의 종목

2차 전지용 안전장치 제조
|신흥에스이씨|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6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와 국내 배터리 3사의 약진, 전기차 성능이 발전할수록 신흥에스이씨의 안전장치 필요성은 더 부각될 전망이다"면서 신흥에스이씨의 적정주가를 5만6800원으로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약 44.9% 상승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신흥에스이씨는 2차전지용 안전장치 제조 전문업체다. 41년의 업력을 보유한 신흥에스이씨는 2000년까지 정밀금형기술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2차전지 안전장치 제조업체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중대형 각형 캡어셈블리(Cap Assembly·전기가 흘러나오는 단자 역할)와 소형 원형 CID 등이 있다.

최 연구원은 "올해 캡어셈블리는 매출의 68%, 소형 원형 CID는 매출의 19%를 차지할 전망"이라면서 "매출의 90~95%가 삼성SDI향으로 고객사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반대로 삼성SDI 또한 신흥에스이씨에 대한 의존도가 75~80%를 차지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캡어셈블리는 배터리 셀의 밀폐와 과전류 발생 시 벤트(Vent·안전변)가 장착돼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소형 원형 CID는 전동공구용에 활용되는 원형전지 부품으로 폭발을 방지한다.

올 하반기 헝가리 법인 증설효과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신흥에스이씨는 주요 공장 중 하나인 헝가리법인의 캡어셈블리 4기 라인 증설을 완료했다. 헝가리법인의 캡어셈블리 생산 역량(capa)은 지난해 월 320만개에서 올해 520만개로 확대됐다.

최 연구원은 "3분기 부터 해당 증설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돼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흥에스이씨의 매출액은 3160억원으로 전년(2395억원)보다 3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영업이익은 16.3% 증가한 23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올해 실적 반등은 하반기, 유럽에서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전기차 판매량 증가가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최근 유럽에서는 전기차 의무 판매비율을 상향하고, 전기 택시와 상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했다. 또 10억 유로 규모의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전기차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유럽에서 두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인 프랑스의 지난 6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23만3820대였고, 이 중 전기차가 2만990대를 차지했다"면서 "6월 전기차 지원금 확대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판매 수치다"고 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모바일 앱으로 입주예정자 불편사항 처리

포스코건설 '온마음라운지' 도입
간편한 접수, 처리현황 조회 가능

포스코건설이 아파트 입주예정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모바일 앱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의 고객 불편사항 해소 앱 '온마음라운지'는 입주자 사전점검 예약, 입주 예약, 불편사항 신청과 처리현황조회 등 입주를 앞둔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그동안 입주예정 고객들이 사전점검 행사에서 확인한 불편사항을 수기로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계약자정보와 동호수를 입력하고 불편사항을 사진과 함께 등록하면 된다. 또한 조치된 내용들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더샵 오산센트럴' 입주예정 고객이 '온마음라운지' 앱을 통해 불편사항을 등록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경기도 '더샵 오산센트럴'에 '온마음라운지' 앱을 시범적용했고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가진 평택 '지제역 더샵 센트럴파크' 를 시작으로 모든 입주예정 단지에서 적용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

삼일회계법인, 배화주 대표 선임… 공동대표 체제

삼일회계법인은 6일 사원 총회를 열고 고객 및 마켓 담당 대표로 배화주 대표이사(사진)를 추가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삼일은 윤훈수 대표이사 최고경영자(CEO)가 조직의 경영 전반을, 배화주 대표이사는 고객 및 마켓 등 대외 업무를 맡게 된다.

배 신임 대표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했다. 이후 약 2년간 PwC 미국 로스엔젤레스 사무소 파견 근무를 거쳐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딜 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약 10년간 회계감사, 세무업무를 수행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요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자문, 기업인수합병, 분할합병자문 등을 주로 담당했다.

그는 현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민학원 감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감사 등을 맡고 있다.

/손엄지 기자

미래에셋대우, 700억 규모 ELS 5종 판매

미래에셋대우는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ELS) 등 총 5종 상품을 약 700억원 규모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시 30분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29103회 KOSPI200-S&P500-Eurostoxx50 ELS' [고위험] 는 만기 3년 상품으로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대비 90%(6·12·18개월), 85%(24·3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7.70%(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70%(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85% 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 손실은 최대 100%까지 발생할 수 있다.

상품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대우 전국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태화 기자